

소 교리문답 제12문

1. 오늘의 공부

제 12 문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창2:16-1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일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12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오늘은 12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2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어떤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예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혹시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죽는 일이 없이 에덴동산에서 잘 살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답니다. 이것은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지만 명령을 잘 지키면 죽음이 없이 에덴동산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바보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신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이처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예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라는 것을 구경한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직접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과가 있는 에덴동산에도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는 아무도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 우리도 아담에게 주어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힌트는 ‘똑같다’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아담처럼 에덴동산에 있었다면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전혀 아니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담처럼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적은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는 벌을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벌도 받지 않고 에덴동산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서 인간이 배우게 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도 내리신 것이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②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도 왜 아담에게 내려진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③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담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담처럼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적은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④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있어서 인간이 배우게 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도 내리신 것이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13주 :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답 :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 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롬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